

“무역전쟁 휴지기… 내년 코스피 최고 2450 상고하자”

2020년 리서치 전망 포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올해 보다 좋을 것
상반기 국내증시·리츠 수익성 UP
하반기에는 높은 밸류 경계해야

글로벌 경기가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내년 상반기 중 245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기술(IT)섹터가 강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보다는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HW)업종 투자가 유망할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한마음홀에서 열린 ‘2020년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나금투

◆ 2020년, 완만한 경기 회복기

이날 ‘2020년 경제 전망’ 관련 주제발표를 진행한 나중혁 자산분석실 팀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좋을



12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한마음홀에서 열린 ‘2020년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나금투

것”이라면서 “60% 확률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를 위기에 빠트렸던 미중 무역분쟁이 ‘스몰딜’(부분적 합의)을 앞두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는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의견이 다수라는 판단에서도.

나 팀장은 “무역전쟁을 휴지기로 2020년 세계 경제는 성장률을 넘어서는 교역량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이 경우 신흥국 경제가 경기 회복을 견인할 개

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2%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 팀장은 “한국과 신흥국과 같은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커질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64원으로 예상하고,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서 10, 20주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반기에는 국내 증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투자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높은 밸류(가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강세, 코스피 기대 수익률 15%

‘2020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 이재만 자산분석실 팀장은 “테크(tech) 업종을 필두로 내년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15%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했던 만큼 내년에는 수출, 상장사 이익 등이 기저효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 팀장은 “올해 한국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마이너스(-)38%로 전 세계 꼴지 수준이었지만, 내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증시 주도주로 테크주를 꼽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팀장은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내년에는 하드웨어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연히 한국으로 수혜가 넘어와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를 미뤄왔던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설비 투자(CAPEX)를 늘리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테크 섹터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7분기 연속 감소했던 삼성전자 생산설비 투자가 들어나면서 매출은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른 테크 섹터 기업들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만한 업종을 선별하는 방법은 ‘기업별 투자 이익이 높은’ 기업을 추천했다. 즉, 주가수익비율(PER)은 낮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은 기업이다.

이 팀장은 “조선, 운송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하드웨어, 가전 업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덧붙이자면 호텔, 미디어와 같은 중국 관련 소비재도 좋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당·정·청 “정책 성패, 지자체에 달렸다”

재정 집행율 따라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지방자치단체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광역·기초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원회의장, 김두관 침체는 지방정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 실장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이재

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자체 재정 집행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권은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혜택 체감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기준금리 사상 최저인데… 채권금리 되레 상승

(1.25%)

가계·기업대출금리 덩달아 상승 향후 채권금리 두고 전망 엇갈려

지난달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국내 채권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기업대출금리도 상승 중이다. 시장금리가 역주행하면서 앞으로 채권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 기준금리 내렸는데 채권금리는 올라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보다 16.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66%를 기록했다. 1년물도 한 달 전보다 8.4bp 오른 것을 비롯해 5년물(23.1bp), 10년물(27.2bp), 20년물(26.5bp), 30년물(27.0bp), 50년물(27.0bp) 등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금투협은 “지난달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채발행 확대로 인한 수급 우려 등으로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채권금리가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8월 중순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1.8bp 내린 1.500%에 마감했는데 지난 8월 19일 1.09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40.7bp 올랐다. 국고채 10년물도 11일 기준 1.5bp 내린 1.788%에 마감했으나 지난 8월 16일 1.172%보다 61.6bp 상승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다 경기개선에

한국 국고채 3년물과 정책금리 추이



대한 기대감, 내년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한 부담, 위험자산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이 채권을 대량 매도한 것도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을 부추겼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채권자금은 5억5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5억9000만 달러 빠지며 한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은 한 해 운용 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채권을 매도한다”며 “올해는 이런 북클로징 현상이 유난히 빨리 나타나면서 기관들이 채권시장에서 빠져 수급 차원에서 불균형이 생겼다”고 말했다.

◆ 앞으로도 채권금리 오를까 앞으로 채권금리가 계속 오를지, 다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장에서는 아직 채권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인 전망도 나온다.

채권금리가 오르는 쪽일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가 나빴던 탓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게 쉽지 않은 구조여서 채권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저점 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상승할지, 어디가 고점인지, 다시 내려갈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만났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가격엔의심이 없지만 당장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인이 작년부터 매수하며 쌓은 국채선물 물량을 공격적으로 덜어내면서 투자심리가 매우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채권금리에 대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투자심리 회복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심리만 안정된다면 단기 급등한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손실 위험을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하에서 투자심리 회복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시장 선점에 주력

» 1면 ‘침체 빠진…’서 계속

‘포스트 전기차’도 이미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다. 바로 수소전기차가 주인공이다. 현대차는 일찍이 수소차 개발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아우디와 손을 잡고 수소차의 엔진적인 스펙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역시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직접 보여줬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 앱티브사와 합작회사를 세우며 자율주행 플랫폼 시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기세다.

현대차는 더 다음 모빌리티인 플라잉 카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 9월 UA M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국 나사 출신 신재원 박사를 영입하는 등 준비를 마

쳤다. 플라잉카는 드론을 이용한 신개념 모빌리티로, 차세대 도심 운송수단으로 페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업체들도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그 밖에 재계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엑시노스 오토’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LG전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전동화 장치에 더해 오스트리아 ZKW를 인수하고 그룹 직속 자동차부품팀을 신설했다. 전기차에 필수 부품인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을 필두로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가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 전세계 전기차로 빠르게 진출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